

## 침묵의 상처

김정범은 도예와 조각을 결합해놓은 이채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본차이나 자기 흙으로 아기형상을 만들어 1,300℃로 소성시켜 내면 백색을 띤 아기마스크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마스크를 제작할 때 흙과 섬유질을 섞어서 제작, 일부는 불에 타게 하고 나머지는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원형을 두고서 타지 않은 부분과 일부가 탄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마스크를 얻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마스크를 격자모양으로 배치시켜 진열하기도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배치된 아기마스크의 잠든 표정은 우리에게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일부가 태워진 부분은 다소 그로테스크한 얼굴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조금씩 왜곡되어진 마스크 형상을 통하여 내면세계마저 일그러져 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바닥에 커다란 아기두상을 설치하여 깊은 침묵속의 아기는 마치 자궁 속 유토피아의 그리움을 지닌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명의 잉태’라는 문제에 관심을 지닌 작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은 최근 생명공학,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복제의 문제로도 직감된다. 곧 과학과 이성이 가져다준 예기치 못한 결과와 그 심각성을 들추고자하는 것이다.

작가는 ‘역사적으로 고대 헤롯왕의 아이들 학살로부터 수세기동안 질병, 전쟁, 기아와 쾌락의 부산물로써 희생되어온 아이들을 모델로 삼으려 한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작가는 시대가 만들어낸 광폭성에 주목하면서, 그가 생명체가 가지는 정체성의 모색에 깊은 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아이는 상처로서의 결과라기보다는 희망의 상징체이다. 그는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통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바란다. 그리고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자기반성의 여운을 던지시 남겨두고 있다.

상처와치유전에서 발췌 **김윤조** (예술의전당 미술관 큐레이터)